

# 일본 환경교육의 흐름과 학교환경교육의 실천사례

원종빈

동경농공대학원 환경교육학 전공 박사과정1년

## 1. 일본 환경교육의 흐름

일본에 있어서 환경교육은, 고도경제성장기때에 「환경」이라는 개념이 싹을 틔우기 시작했을때부터 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이전부터 자연보호교육이라는 형식으로서 환경교육이 시작 되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일본의 경제가 급성장을 하면서 도시화, 중화학공업화가 진척됨과 동시에 1950년대에 미나마타병, 이따이이따이병, 천식 등을 대표로한 공해병이 사회적 문제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러한 문제로인해, 학교교육에서 공해를 통한 환경과 건강에 관련된 학습하는 시간이 설정되었다.

공해교육을 중심으로한 정책의 흐름을 보면 1964년 「동경도 초·중학교 공해대책 연구회」, 1967년 「전국 초·중학교 공해대책 연구회」가 발족, 1970년에는 「공해국회」로 불리는 임시국회가 있었고, 같은 해에 초·중학교의 학습지도요령이 개정되어 「사회과」에 공해학습이 명기 되었다. 또한 1971년에 「공해와 교육」연구회가 발족 되었고 같은 해 환경청이 설치되었다.

1974년에는, 문부성 특정연구 「과학연구」로서 「환경교육 커리큘럼의 기초적 연구」를 진행하도록 하였고 1975년에는 전국초·중학교 공해대책 연구회에서 환경교육 연구회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특히, 이과와 사회과에서는 「환경」이라는 언어를 사용하고, 중학교의 「현대사회」에서는 넓은 시야에서 본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기술하였다.

일본에서 환경교육이 정착 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시기는 1980년대 후반에 들어와서, 환경청이 환경교육 좌담회를 실시하면서이고 환경교육을 환경행정에서 하나의 주요 사항으로 보기 시작했다. 1989년 환경청에서는 환경교육 지침 「함께 만드는 『보다 좋은 환경』을 추구」를 정리했다.

1990년대에 들어와서는, 문부성이 환경교육을 한층 더 추진하기 위해 내놓은 시책 「환경교육지도 자료」(중·고편1991년), 초등학교편(1992년), 사례편(1995년) 이 작성되었다. 그리고 1995년은, 초등학교 저학년엔 생활과가 도입되었던 해이며, 이 교과에서는 저학년에서의 자연체험과 교육 현장에서의 사례가 연구되고 활용되었다.

또한, 환경청이 어린이 에코클럽을 발족시켰고 많은 학교가 이 클럽에 등록하였다. 이 무렵에 학교에서는 문부성과 환경성 등이 일련의 시책을 통해 마련한 환경교육을 도입하는 체제를 정비하기 시작했다. 또 환경성의 시책의 하나인 환경카운셀러 사업은 지역의 환경보전에 관한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인재 양성과 지역환경보전의 역할을 담당하는 지역의 환경카운셀러로서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중전의 지식편중형이라고 불리는 교육제도가 재확인되는 계기가 되었던 1998년의 중앙교육심의회 의 답신서는 큰 전환점이 되었다. 이 답신에서는 「살아가는 힘」(생명력),

「사회의 변화에 주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을 육성하는 것을 새로운 교육목표로 정했고, 아이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하는 교육에 중점을 둔 것으로서 환경교육을 진행하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같은 해에 「초·중학교 학습지도요령」과 1999년의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에서는 「총합적인 학습의 시간」이 새롭게 채택 되었다.

「총합적인 학습의 시간」은, 학교환경교육의 제도로서 아이들과 지역의 어른들의 공동 참여에 의한 의사결정과 학교·가정·지역·환경관련 센터 등의 연대로 아이들이 지역의 구성원으로서 환경문제를 주체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종합적인 「지의 총합화」의 「장」되어야 한다.

환경교육은 교과교육 과목이 아니며 아이들이 활동하고 있는 범위에서 발생하는 환경에 관한 테마가 우선되는 교육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학습내용은 기존의 교과서에서는 대응 할 수 없는 복합적인 요소가 있다. 그 내용은 현재 진행하고있는 것도 있으며 미래형의 것도 있어 체계화 되어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래의 교과 학습과는 차이가 있는 목적과 방법으로 전개해 나가야 할 학습이라고 생각한다.

일본의 교육제도의 현실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수험체제 속에서 융통성 없는 교육, 교과주체의 고정화된 교육과정이며 학교에서의 환경교육이 자랄 수 있는 유연성을 찾기는 힘들다.

환경문제는 현실적인 문제이며 자기 자신이 이 현실을 살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생존과 연결되어 있는 문제이며 이것을 아이들이 어떻게 받아 들이느냐가 환경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이러한것을 생각할때 학교 교육체계의 개선만이 아니라 환경교육을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학생, 교직원, 지역주민이 적극적으로 참가 할 수 있는 네트워크 만들기가 중요하다.

## 2 일본의 학교 환경교육의 실천사례

앞에서 말한바와 같이 환경교육은 학교교육만으로 효과적인 교육방법을 찾기란 어려운 일이다. 환경교육은 지역환경 속에서 교사와 아이들이 주체적으로 과제를 찾아내고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지역의 주인공이 되지 않으면 안된다.

일본에 있어서도 이러한 관점을 갖고 아이들과 함께 환경교육을 실천해 나가는 교사는 극히 보기 힘들다고 할 수 있다.

환경교육은 가치관형성과 그 가치를 실현시키기 위한 행동주체를 기르는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행동주체란 자신이하는 행동하는 것에 대한 주인공이 되는 것이며, 자신의 일에 대해서 자신이 결정하고 책임을지는 「당사자주권」를 행사할 수 있는 주체자이다 (大森亨 2004년).

또, 환경교육은 생태학적으로 지속 가능한 사회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각자가 자신의 생활 속에서 또는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환경과 접하면서 자신의 삶을 반성하고 행동하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모든 교육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초등교육에 있어서의 환경교육은 지속가능한 사회를 실현시키기 위한 기초적이고 기

본적인 사고와 행동의 틀을 만들어 주는 중요한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 3 大森(오오모리) 학급의 환경교육 실천사례

동경도 수미다쿠 오오매초등학교(墨田区小梅小學校)의 오오모리 교실에서는 아이들의 주체적인 교육활동이 시작 되고 있었다. 2004년도 어느날 오오모리 교실의 5학년 아이들에게 오오모리 선생님은 「우리 함께 사쿠라 나무를 베러 가자」라고 제안을 했다. 이러한 선생님의 제안에 아이들은 응성거리기 시작했다. 「살아 있는 나무를 왜 베어버린다는 거죠?」「항상 우리에게는 자연은 소중한거라고 말씀하시면서… 정말 이상해!」아이들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오기 시작했다.

오오모리 선생님이 제안한 사쿠라 나무는 동경의 수미다 강가에 심어져 있는 사쿠라 길에 있는 것이며, 이것은 에도 시대때부터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아 온 나무이다. 이 사쿠라 길을 보전하기 위해 구청에서는 주민들과 사쿠라 나무를 벌채하기로 한 것이었다. 오오모리 선생님은 학교구역의 주변에 있는 사쿠라 길 보전 활동을 아이들이 주체적으로 참가하기 위해서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다.

교과시간에 식물은 독립적으로 영양식물이며 광합성에 의해 양분을 섭취한다는 것을 설명하면서, 사쿠라 길에 대해 나뭇가지와 뿌리가 서로 엉켜있어 서로 성장하는데 방해하는 상태에 있다고 설명했다.

후일, 오오모리 선생님은 구청 직원의 협력을 얻어 아이들과 가지치기를 위한 조사를 실시 했다. 수목 관리인이 부식균에 의해 병든 나무를 아이들에게 보여주었다.

오오모리 교실의 아이들은 6개의 모둠으로 나뉘어 각각 조사한 나무의 상태를 이야기 하면서 서로의 의사를 확인했다. 「이 나무를 자르면 여기가 비니까 햇 빛이 들어 올거야」「이 나뭇가지는 도록측으로 뻗어 나와있다」등등 의견이 많이 나왔고 드디어 어느 나무를 베어 낼 것인가 결정이 났다. 오오모리 선생님은 아이들이 결정한 나무를 구청에 보고하고 마침 구청과의 생각과 일치하여 아이들이 결정한 나무를 베어내기로 했다.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돌아가며 톱으로 나무를 베어내기 시작했다. 나무를 베어낸 후 오오모리 선생님은 베어낸 나무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아이들에게 물었다. 아이들은 「기념이 될 만한 것을 만들고 싶다」고 하였고 구청의 협력으로 아이들이 베어낸 나무를 공작에 사용할 수 있도록 잘라서 제공할 것을 약속 했다.

이 나무를 베어낸 아이들은 현재 6학년이 되었고, 아이들은 사쿠라 보전활동으로서 「사쿠라 보전기금」의 활동을 하자, 사쿠라를 만들자는 간판을 만들자 등의 의욕을 보였다. 오오모리 선생님은 이런 아이들의 의욕을 중시하기 위해 구청과 상담을 했다.이로인해 학교옆에 있는 수미다 공원의 「스미가 공원재생 프로젝트」에 아이들이 공원만들기에 참여하게 되었다.

현재 오오모리 교실에서는 「총합적인 학습 시간」을 이용하여 수미다 공원을 몇 차례에 걸쳐 조사를 실시하였고 현재도 활동중에 있다. 이 프로젝트에는 사이타마 대학교의 환경교육 관련학과 학생들이 공동으로 참여를 하여 각 모둠으로 나뉘어 아이들과 필드 워크에 참가하였고 어떤 공원이 아이들에게 필요한 공원인지 의견을 교환하였다. 그 의

견에서는 아이들이 놀기에 편리한 평범한 공원이 아니라 공원의 단차와 울퉁불퉁한 부분을 없애고 장애물을 제거하자는 의견, 공원의 자연을 그대로 나들 것인가 아니면 나뭇가지등 길게 뻗은 나무를 잘라내어 채광을 좋게 할 것인가 등의 의견, 정글짐을 만들자는 의견과 그내를 더 설치하자는 의견등 여러 의견이 나왔다. 그 중에서도 수미다 공원에서 거주를 하고 있는 노숙자의 문제가 크게 대두 되었고 이들을 위한 사회복지 시설에 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수미다 공원만들기는 현재도 계속적으로 진행중이며, 지역의 주민과 아이들, 학교, 사이타마 대학생들이 참가하여 공원 만들기에 노력하고 있다.

오오모리 선생님의 환경교육은 지역 속에서의 실천교육을 통해 행동 주체를 육성하고 초등학교 환경교육에서 「행동지」와 「내용지(학교 교과교육)」가 동시에 실현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